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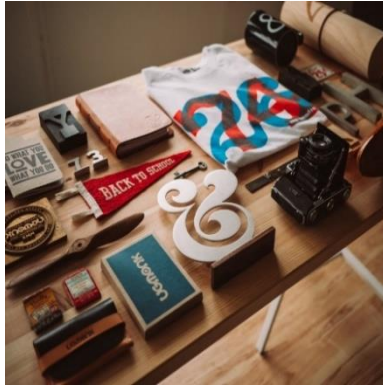
NEWS LETTER

의료인문테마스쿨 보도본부



01

딥 러닝
시작하기



02

천년 예술 속
의학이야기



03

심리와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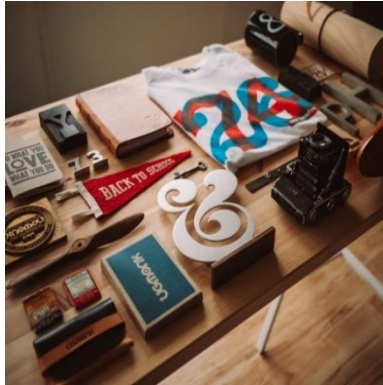


05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06
의사와
오케스트라



07
히포크라테스의
선택



08
눈높이 지팡이
What patients want



09
눈높이 지팡이
낭만 닥터

10
눈높이 지팡이
의대생들의
광고 제작일기

딥러닝 시작하기

부제 ; 수포자도 할 수 있다

취재 : 채현주 / 담당 교수님 : 이창형 교수님 / 참여학생 : 김대영, 김보근, 이영은, 정준범

지난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강 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과 바둑 경기를 두고 4:1로 압승하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아마 이 사건이 국민들이 인공지능을 체감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 아닐까 싶다. 도대체 이게 뭐기에 세계 최강 바둑기사를 제치고 번번이 승리하는 건지 사람들은 당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 AI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왔고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스며들어 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엔 WATSON for oncology가 도입되었고 무인자동차가 성공했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게 인터넷을 장식하며 TV 만 틀면 나오는 AI 스피커는 날씨를 알려주고 스케줄을 확인해줄 뿐만 아니라, "교촌치킨 허니콤보 배달해줘"라고 말하면 배달 주문을 해주기까지 한다.

엄청난 속도로 인간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오고 있는 인공지능, 아마 의학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훗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게 될 우리가 인공지능을 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18년 3월 20일, 루가관 414호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인 코딩 수업을 하고 있는 1조를 방문하였다.

이 날, 교수님과 학생들은 '주피터'라는 프로그램을 'tensorflow'라는 프로그래밍언어를 이용하여 코딩을 진행하였다. 내가 방문했던 시간에 했던 수업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기본적인 몇 가지 숫자를 입력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 숫자들 사이에 함수를 찾아내는 과정이었다. 점점 더 다양하고 많은 숫자를 입력해도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함수를 찾아내고 예측해낸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해보자면, 14학번의 시험 데이터를 미리 입력해놓고 15학번의 주간시험 1차 성적과 2차 성적을 입력하면 14학번의 데이터 사이에서 함수를 찾아내어 15학번의 1,2차 시험 성적만을 가지고 기말시험 점수를 예측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미리 예시본을 만들어 오셔서 수업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수학이나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이 참여하여 어렵기만 할 줄 알았던 코딩을 재미있게 해나가고 있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교수님께 이러한 수업이 앞으로 저희가 의사를 해나가는데 있어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셔서 이 수업을 마련하게 된 것인지 여쭙어보았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의학에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미 우리병원을 비롯하여 많은 병원에 Watson이 들어와 실제 환자들의 진료에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활용할 줄도 모르다보니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들 각종 매체에서 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인공지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이란, 빅데이터,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3D 프린터와 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을 모아서 control하고 응용하기 위한 ‘인체의 두뇌’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일차적 타겟은 ‘금융’과 ‘의학’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다가오면 “혹시나 일자리가 뺏길까? 그럼 인공지능을 막아야하나?”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인공지능을 친구 삼아 잘 알고 또 다른 가치창출을 위해 새로운 일로도 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옛 사자성어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개념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본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인 ‘코딩’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인공지능과 인터넷 기술일지라도 작동원리의 기본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코딩'을 알면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비디오방에 가서 비디오테이프를 빌려보고 CD에 파일을 저장하곤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도 불과 몇 년 만 지나도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활용정도가 천지차이죠. 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일수록 그 기초를 알면 아무리 어려운 기술이 나와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코딩, 딥러닝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가르쳐주는 사람도 마땅히 없고 어디 가서 배워할지도 잘 모르겠고 막막하기만 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약 10년 후 인공지능의 일차적 타겟인 '의학'의 최선방에 있는 '의사'가 될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이 앞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코딩을 가르쳐주는 것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이번 학기에 이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를 마무리하며 1조의 주제인 '딥러닝 시작하기 부제 ; 수포자도 할 수 있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딥러닝'이란 학습을 통해 생각하는 컴퓨터라는 뜻으로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은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기술이다. 의학은 나날이 발전해가고 수 백만 명, 수 억 명의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점점 쌓여간다. 매일 수 천 개의 논문과 저널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분류하고 학습해 나가는 것이 인간이 하기에는 한계점이 너무나 많지만 컴퓨터가 스스로 이를 학습하여 처리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WATSON for oncology가 하고 있는 일도 수많은 논문과 저널을 학습하여 새로운 환자의 데이터를 입력하였을 때 그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마 이창형 교수님께서서는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의학에 가장 무궁무진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에 이러한 수업을 여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부제로 '수포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어렵게만 생각해왔던 코딩, 프로그래밍도 기초부터 탄탄히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허우적대며 적응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인공지능과 친구를 맺어 다양하게 활용하고 누구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의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다.

천년 예술 속 의학이야기

취재 : 채현주 / 담당 교수님 : 설기호 교수님 / 참여학생 : 김병규, 김효정, 남준호, 신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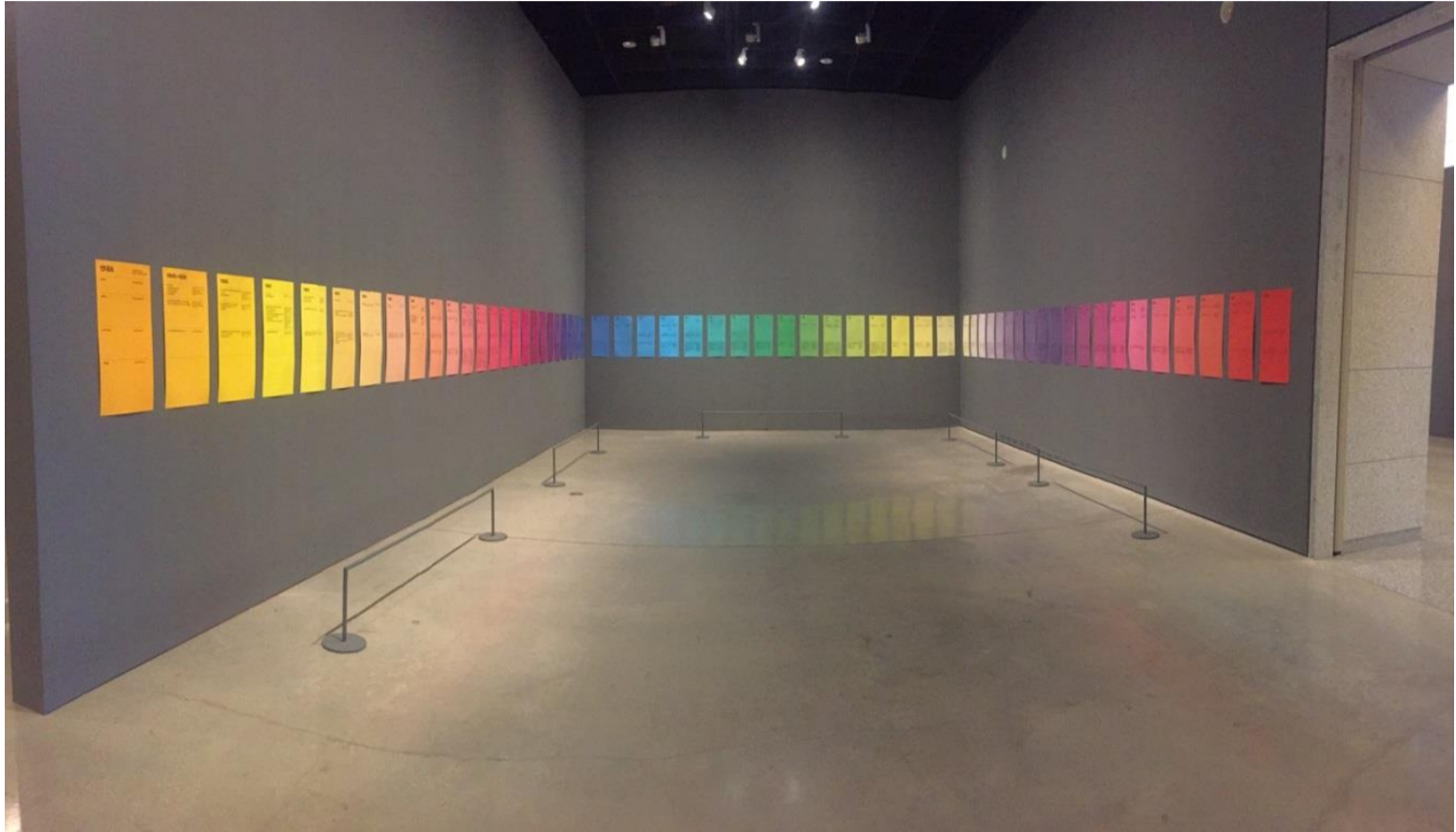
여러분은 MEDART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학과 예술의 연관성은 얼마나 될까요?

의학의 아버지 Hippocrates가 한 명언 중 “Life is short, and Art long” 즉,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다. 지난 의료 윤리 시간에 배웠듯이 실제로 이 명언은 “life is short, and art long, the crisis fleeting, experience perilous, and decision difficult”라는 긴 문장의 일부분으로 예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위기는 찾아오고 결정은 힘드니 ‘의사들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hippocrates는 의학을 art라고 표현했을까? 사전에 의하면 예술이란 일정한 과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숙련된 능력 또는 활동으로서의 기술이며, 미적 기술과 수공적 기술 그리고 효용적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예술을 음악, 미술과 같은 것으로 한정짓는 것은 미적 기술만을 고려한 생각이며 이러한 생각은 18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진정한 예술의 의미에 비추어본다면 의학은 예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심미적인 것이 중요한 예술 특히 미술과 정확성과 기술을 중요시하는 의학의 조화가 조금은 낯설지만, 이러한 아이러니한 조화가 실제로는 한 뿌리에서 탄생한 것이다.

2011년 서울대학교 병원역사문화센터에서 열린 ‘예술 속의 의학’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 의대 출신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타 병원, 연구소, 박물관에서 오신 분들이 참석하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예술과 의학의 의미와 공통점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한다. 조수철 서울대 의대 교수(정신과)는 ‘음악과 의학’이라는 발표를 통해 음악이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치료 또는 치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내세웠으며 한성구 서울대 의대 교수는 ‘그림 속의 의학’이라는 발표를 통해 미술을 비롯한 예술을 음미함으로써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어떻게 증례가 아닌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와 함께 정태섭 연세대 의대 교수는 ‘X-ray Art의 새 지평’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X-ray 작품들을 소개하며 의학과 예술의 조화를 설명하였다고 한다.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만 생각해왔던 예술과 의학. 가깝고도 먼 그 두 학문 사이의 미묘함을 공부하고 있는 조가 바로 이번에 취

재를 진행한 2조이다. 그들은 약 2달에 걸쳐 '천년 예술 속 의학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지난 역사 속에서 의학과 예술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해왔는지, 그 둘 사이에 연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업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교수님과 조원들은 실제로 미술관에 가서 의학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예술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보기 위해 지난 5월 12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미술관'을 찾았다.



안타깝게도 그 날 대구미술관에서는 하나의 전시회만을 진행 중이었다.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아방가르드 미술과 2017년에 50주년을 맞이한 한국의 행위미술을 다루고 있는 전시회였다. 약 22명 작가의 회화, 설치, 영상, 사진과 행위미술 50년을 기념하는 자료 2000여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를 모두 관람하고 모인 조원들에게 교수님께서 의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작품들은 찾을 수 없었지만 행위예술 동영상을 보다보니 그 당시의 시대상황, 유행하던 것들을 예술 작품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한 행위예술을 보고는 저 당시엔 유리병에 든 fluid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행위 예술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와 잘 맞지 않을 땐 미친 짓 같기도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행위예술가들이 어떤 의미를 담아 행위를 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공감할 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예술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돌아가기 전 아쉬운 마음에 대구미술관 3층에 있는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큰 규모의 도서관은 아니었지만 건축, 디자인, 회화 등의 다양한 미술의 분야마다 수 백 권의 책이 분류되어 있었다. 차근차근 책의 제목을 훑으며 의학과 관련된 책이 있을까 찾아보았지만 끝내 발견할 수가 없었다.



18세기부터 예술에 대한 개념이 미적인 감각으로만 제한되고 그러한 생각이 현재까지 이어져오다 보니 예술과 의학은 함께 공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너무나도 다른 학문으로 느껴져 왔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인터넷에 의학과 예술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이나 연결고리가 있을까 찾아보았는데, 실제로 정신과 치료에 'art therapy'라는 이름으로 음악이나 그림을 통해 자폐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어루만져 주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었다. 음악은 신경성 질환자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정서장애나 학습장애, 성격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준다. 또한, 뇌성마비와 같이 육체적 장애를 가지거나 암 환자처럼 불치병으로 투병하는 환자들에게도 보조적 치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미술심리치료'는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말로써 표현하기 힘든 느낌, 생각들을 미술 활동을 통해 표현하여 안도감과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하고 내면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며 자아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법이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예술과 의학은 관련성이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술과 의학은 같은 뿌리에서 탄생하였고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준다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환자들에게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 기분을 완화시켜주는 존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은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지 못해도 잘 알지 못해도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평온함과 여유를 잘 느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다.

심리와 동영상

취재 : 배지원 / 담당 교수님 : 최태영 교수님, 김준원 교수님, 윤서영 교수님 / 참여 학생 : 김지성, 백다영, 오준석, 이나영, 최은별

모두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며 '저 사람의 심리는 대체 뭘까?' '저런 말은 대체 어떤 심리에서 하는걸까?' 궁금했던 적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을 다루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어떤 환자들을 대하는 걸까 종종 궁금했었다.

의료인문테마스쿨 <심리와 동영상>조는 총 세 분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최태영 교수님, 김준원 교수님, 윤서영 교수님)과 김지성, 백다영, 오준석, 이나영, 최은별 이렇게 5 명의 의학과 2 학년 학생이 함께 동영상을 통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면담법을 배워보는 활동을 하는 조이다.

궁금했던 <심리와 동영상> 팀에 취재를 나가게 된 건 3/27 오후 5 시였다. 7 층 회의실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 날은 우선 정신 질환에 대해 잘 모르는 조원들이 드라마, 영화 등의 매체에서 다뤄진 정신 질환들에 대해 알아오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해본 적이 없어 잘 몰랐는데 조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은 매체에서 정신질환을 주제로 다루었거나,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후에는 정신의학의 탄생이라는 책을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시는 시간을 가졌다. 정신의학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들으니 잘 몰랐던 정신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더욱 더 친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잠깐 동영상 촬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주인공은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 후 수업을 마쳤다.



5/11 금요일, 8 교시가 끝난 후 드디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는 <심리와 동영상> 팀의 촬영 현장에 방문했다. 촬영 시작 전 모두 역할에 알맞는 소품을 활용해서 현실성을 높인 모습이였다. 주인공인 오준석 학생은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한 고등학생을 연기하기로 하여 교복을 준비해왔고, 정수기 옆 물컵 종이로 담배를 만들기도 했으며 그 외에 반사회성 인격장애 환자의 가정환경이 매우 특징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소주병 등의 소품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필자도 소품 준비 과정에 참여하였는데 기대와 긴장이 섞인듯한 조원들의 모습에 어느새 동화되었다. 다들 미리 써온 대본을 숙지한 후, 첫 컷 촬영에 들어갔다. 평소에 본적 없는 동기들의 진지하게 연기하는 모습들이 새삼 새롭게 느껴졌다. 대본을 준비하고 동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질환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나도 함께 더해지는 느낌이었고,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오래 이어진 촬영 과정을 모두 견뎌내고 동영상 편집까지 하는 조원들은 조금 고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아직은 편집 중인 영상을 한번 구경해보았는데 매우 고퀄리티라 다들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동기들의 열연을 보며 수업 시간에 배운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또한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어낸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바쁜 일상 중에 시간을 쪼개어 결과물을 만들어낸 동기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취재 : 배지원 / 담당 교수님 : 송현욱 교수님 / 참여학생 : 배일섭, 오현서, 이재운, 한상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때에 소중한 순간들을 마주하기 마련이다. 그런 추억들을 기억에만 묻어두기보다는, 사진으로 남긴다면 훗날 힘들고 고된 시간들을 버텨내는 데에 큰 힘이 되어줄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사진을 찍는다. 또한 정성들여 잘 찍은 사진은 그 순간의 느낌과 감정을 더 증폭시켜 담아주는 기록제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정말로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왕 사진 찍는 거 멋있게 잘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사진을 잘 찍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팀은 송현욱 교수님과 의학과 2학년 배일섭, 오현서, 이재운, 한상철 학생이

교수님의 DSLR 카메라 3 대와 오현서 학생의 카메라 1 대를 활용하여 카메라에 대해 공부해보고 실제로 출사를 나가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며 열띤 활동 중이다. 5 월 1 일, PBL 실에서 기억을 지배할만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사진 공부 중인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팀에 취재를 다녀왔다.

6 교시까지의 수업을 모두 마치고 동기들을 따라 PBL 실로 향했다. 필자 또한 과거에 취미로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기대되는 마음이 컸다. 우선 수업이 시작되고 오현서 학생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출간한 <인물사진을 잘 만드는 비결>이라는 책을 미리 읽어왔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른 동기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적인 사전 지식은 없었지만 오현서 학생과 교수님의 설명과 함께 들으니 유용한 정보가 많았다. 다른 세 명의 학생들도 책의 예시 사진을 살펴보기도 하는 등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 순서는 지난 수업에서 진행되었던 두류공원 출사에서 찍은 사진들에 대한 피드백이었다. 벚꽃 핀 두류공원을 배경으로 서로서로를 찍어주기도 하고, 풍경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그 중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결과물들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하였고, 교수님께서 그 사진들을 인쇄해오셨다. 한 장 한 장 보면서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이야기하고 더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교수님과 함께 상의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밝기를 더 올려야 하고, 보정 시에는 밝기가 어두운 게 낫고, 조리개 수치는 어떻게 했어야 했고... 다들 첫 시간에는 카메라 다루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한 초심자들이었다고 들었는데 몇 주만에 조금은 사진 전문가에 가까워진 모습이었다. PBL 실에서 약 한 시간 반 가량의 수업을 진행 후에는 미리 상의했던 대로 필자가 인물 사진 연습의 모델이 되어 잠깐 사진 찍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민망해서 그리 내키지는 않았지만 동기들이 열심히 찍어준 덕분에 좋은 사진들도 많이 얻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그 후 6 시에 앞산 <국수>에서 음식 사진 출사가 진행되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셔터소리가 식탁을 가득 채웠다. 다들 열정적으로 피사체를 바꾸어가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한창이었다. 사진 모델 잠깐 한 대가로 함께 먹기에는 너무나도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라 조금 죄송하기도 했고 감사한 마음이 컸다. 그 후 식당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수업은 끝이 났다.

취재가기 전에는 사실 어떤 분위기일지 감이 잘 안 잡히기도 했고, 아무래도 다들 사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상태라고 들어서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사진을 공부하는 건지 조금 궁금했던 것이 사실이다. 직접 가보니 다들 정말 진지한 태도로, 또 사진에 대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감탄했다. 바쁜 학교생활 속 사진 찍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이 되었길, 그리고 언젠간 꼭 기억을 지배할 만큼 멋진 기록을 남기는 멋진 포토그래퍼들이 되길 응원하고 싶다.

의사와 오케스트라

취재: 안효원 / 담당 교수님 : 정지은 교수님 / 참여 학생 : 박기태 최우석 한대현

음악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굳이 연주회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 식당, 가게, 심지어 병원에서도 음악이 흘러나온다. 그렇다면 음악의 기능이 무엇이기에 우리 삶에 이토록 크게 스며들어있는 것일까? 필자도 일종의 취미생활로써 음악을 종종 즐겨듣곤 하는데 아무 의미 없던 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선율을 이루고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 과정에 대해 가끔 경이로움을 느끼곤 한다.

“음악은 상처 난 마음에 대한 약이다.” 영국의 화가인 알프레드 윌리엄 헛트의 말이다. 즉,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말이며, 이는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겠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음악을 정신과적인 치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및 유지하며 향상시키고 치료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 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려는 음악치료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 최근 교내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동기가 단원들을 이끌고 봉사의 목적으로 병원에 연주를 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음악에 약간이나마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여겨서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동떨어진, 또 다르게 보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음악과 의학이라는 두 분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와 오케스트라’라는 주제로 의료인문테마스쿨 활동을 진행한 학생들을 인터뷰해보았다.



Q.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A. 박기태- 평소에 오케스트라 연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우석- 클래식으로 본과 2학년 1학기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대현- 평소에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번 학기 의료인문테마스쿨에서 클래식 음악 듣기 수업을 했었는데 아주 좋아서 이번에도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Q. 평소에 클래식을 즐겨들으시나요?

A. 박기태- 공부하거나 멍하게 있을 때 주로 듣곤 합니다.

최우석- 네. 특히 피아노협주곡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대현- 네. 공부할 때마다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합니다.

Q. 어떤 활동을 주로 했나요?

A. 오케스트라가 무엇이고 어떤 악기들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본 후 직접 오케스트라 공연을 두 번 보고 왔습니다.

Q. 가장 즐거웠던 수업을 소개해주세요

A. 박기태- 5월 25일 보러갔던 정기연주회에서 들은 음악이 너무 좋았고, 연주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최우석- 5.25에 보러갔던 공연(=대구시립교향악단 제 444회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한대현- 피아니스트 노예진씨와 지휘자 코바체프씨가 했던 차이코프스키 공연이 좋았습니다.

Q.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은?

A. 박기태- borelo

최우석-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

한대현- 쇼팽 etude op.10 no.12 (혁명)

Q.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A. 박기태- 베토벤

최우석- Sergei Rachmaninoff

한대현- 쇼팽

Q. 공연을 보면서 무슨 악기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았나요?

A. 박기태- 클라리넷

최우석- 피아노

한대현- 타악기들에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Q. 클래식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A. 박기태- 클 : 클났다

래 : 내(래)일이 시험이다

식 : 식빵

최우석- 제가 센스가 없어서 생각이 안 나네요...

한대현- 클:클

래:래

식:식

Q. 클래식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 박기태-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조화로운 음악입니다.

최우석- 일상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기도 하고... 한마디로 취미? 입니다.

한대현- 딱히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문화생활입니다.

Q. 직접 공연 본 소감이 어땠나요?

A. 박기태- 역시 공연은 직관.

최우석- mp3파일로 듣다가 직접 들으니까 훨씬 더 웅장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대현- 수준 높은 공연을 직접 제 눈과 귀로 즐기니 너무 좋았습니다. 소클래식 사람들이 이런 공연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Q. 의사와 클래식 관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A. 박기태- 의사에게 좋은 취미이자 감정적으로 부드러워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석-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의사가 단순히 클래식을 취미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의사도 간호사, 조무사, 기사 등과 함께 서로 상의를 잘해서 팀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대현- 음? 관계가 있나여....?

Q. 음악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박기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음악이 말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최우석-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클래식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지만 특히 클래식에 대해 흥미가 있는

환자라면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질환의 치료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대현-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환자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심리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도 한대현 학생이 언급한 쏘클래식이라는 교내 오케스트라 동아리의 회원이다. 그렇지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공연만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인터뷰를 통해 클래식 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애정과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 음악치료는 환자에게 안정을 주는 등의 치료적인 효과도 있지만 의사 본인에게도 스트레스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음악을 의학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잘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히포크라테스의 선택: 어떤 의사로 살 것인가?

취재 : 전해연 / 담당 교수님 : 박관규 교수님 / 참여학생 : 석은재, 최석준, 이영훈, 진무현

본과 2학년이 되면서 임상 과목을 반 이상 접하고 나니, 그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의사로서의 삶이 조금씩이지만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실제 의사의 삶은 어떤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들이 커져가고 있었다. 단순히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 공부만 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라 아쉬움이 컸었는데 마침 의료인문테마스쿨 보도본부를 하게 되면서 여러 조의 활동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중 박관규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어떤 의사로 살 것인가?' 조의 활동이 내가 하고 있던 고민을 다루고 있어서 고민 없이 취재를하기로 결정했다.

3/13, 3/20, 5/14 총 세 번의 활동을 함께 지켜보았고 각각 활동 소개,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 가지기, 졸업 후 전공선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시간부터 함께 해서 그런지 단순히 취재를 목적으로 활동을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나에게도 질문을 해주시고 의견을 물어봐주시면서 거의 같은 조원처럼 함께 하였다. 그래서 훨씬 더 재미있고 기억에 많이 남는 취재였다.

세 번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졸업 후 전공선택 주제로 진행되었던 마지막 활동이었다. 이전에 이미 3번의 수업이 진행된 후라 조원들도 첫 시간에 봤던 모습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고, 교수님과도 여러 질문들을 편하게 주고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앞산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활동이 진행되어서 운이 좋게도 맛있는 저녁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졸업 후 전공선택 주제는 평소에 나 또한 관심이 많고 기대도 했던 주제라 기대가 많이 되었다. 전공선택 주제는 총 두 번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활동 시간에는 조원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전공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수님의 의견 또한 들어보는 활동을 했고, 내가 취재를 갔던 두 번째 활동에서는 보다 더 광범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부터 해외의 의료 체계는 어떠하며 그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체계의 장점과 단점들,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진로들과 현황 등 전공선택에 도움이 되고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졌다.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계의 상황과 문제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우리나라 의사에 대한 인식은 좋지 못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다. 단순히 인식이 좋지 않다에서 벗어나서 왜 좋지 않은지, 원인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들이 이어졌다. 나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영훈이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국종 교수님 사례처럼 각 분야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더 나오고 언론에서 재조명 해준다면 인식도 나아지고 예산도 더 지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했는데, 교수님께서 한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과정은 의료계 전체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의료계 안에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다. 나도 영훈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해결책이 나오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함께 다른나라, 특히 미국에서 의사에 대한 인식은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와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현실 제도로는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

3시간 정도 진행된 활동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현재로서는 없다는게 큰 흐름이었고, 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해야한다는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활동이 끝났다.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활동을 하면서 강의실에서는 알 수 없었던 현실들을 마주할 수 있어서 그저 취재기자였던 나에게도 무척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첫 걸음은 어쩌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날 활동이 끝난 후, '어떤 의사로 살 것인가?' 조원들은 그러한 첫 걸음을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었다.



사진 1. 5/14 활동을 시작하면서

눈높이 지팡이

(부제 : WHAT PATIENTS WANT)

취재: 안효원 / 담당 교수님: 송석영 교수님 / 참여 학생: 김도연, 김혜진, 조현수, 황보창호

‘간 때문이야’, ‘쌍쌍 하O젠’ ‘펜O큐 땡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O탄’... 하루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백 개의 광고에 노출된다. 광고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광고 중에서 실제로 광고 효과가 있는 것들은 몇 개나 될까? 위의 예시들만 봐도 홍수 같은 광고들 속에서 몇 개의 광고들만 기억에 남아 광고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광고에 끌릴까?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광고가 큰 영향을 일으킬까?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병원을 팔아보겠다고(?) 나선 학생들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를 하며 느낀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조가 ‘마케팅 전문가’라는 것이었다. 경영학과 출신 마케팅 전문가 김혜진 학생을 중심으로 모두들 진지하게 효과적인 홍보 방식을 연구해 와서 발표순서 정하는 것부터 각자의 발표까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어 낮이 나간 채로 발표를 들으며 마케팅에 대해 배웠던 기억이 난다. 조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현재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 방식은 잘 유지하되, 우리 병원만의 독특한,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홍보 기획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기존의 병원의 장점만을 강조한 상업적인 목적의 광고보다는 환자들의 마음을 건드리며, 홍보인 듯 홍보 아닌 듯 자연스러운 홍보로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궁금해서 찾아보도록 하는 광고가 좋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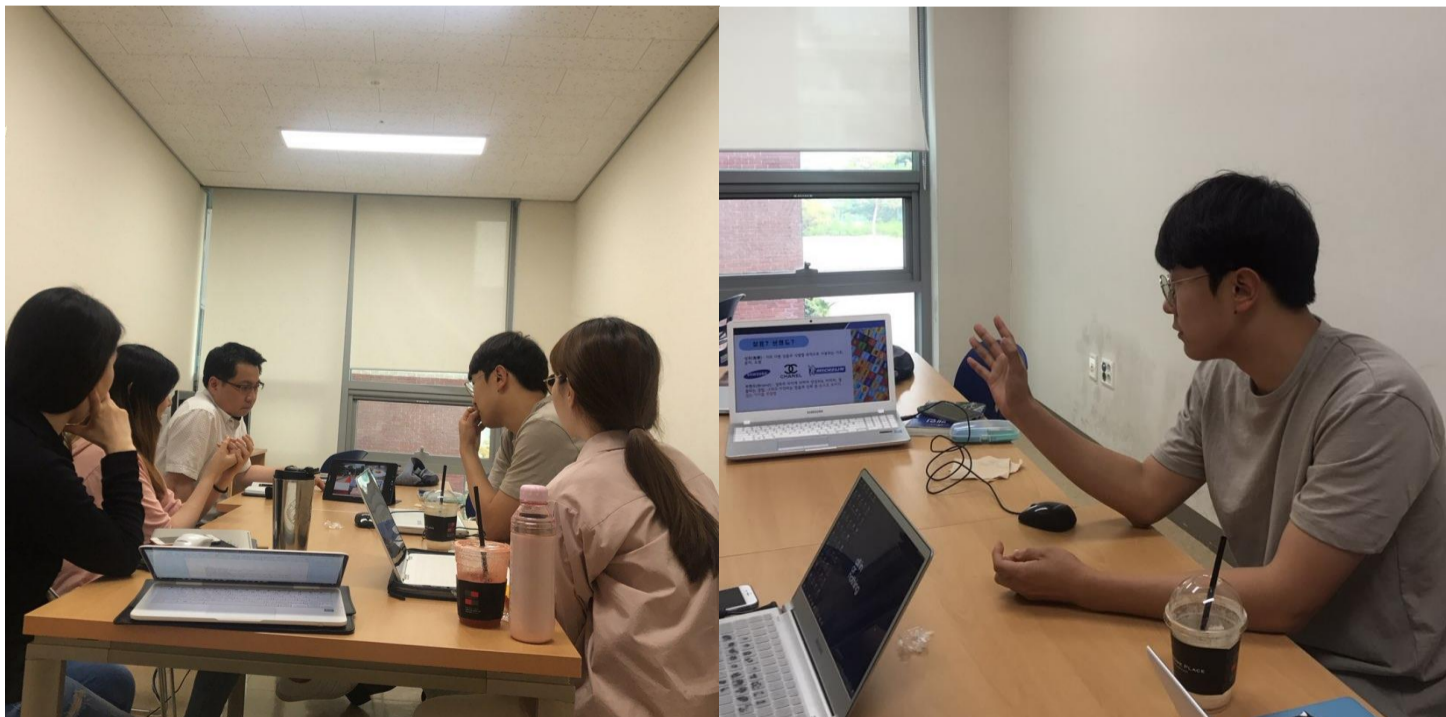
발표에서 언급되었던 재미있고 당장 실현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몇 가지 홍보 기획들을 소개해보려 한다. 먼저 우리 병원의 눈에 띄지 않고 노후된 셔틀버스 정류장을 특이하고 재치 있게 꾸미는 것이다.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가끔 전략 이벤트(ex. 어버이날 카네이션 뽑아가기, 부활절 계란 증정 행사 등)를 구상하여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와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 병원과 매우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셔틀버스 정류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은 다른 어떤 홍보보다도 즉각적으로 우리 병원의 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아이디어로는 지하철 등에서 래핑 광고를 이용하는 것이다. 래핑광고는 지하철 계단, 지하철 내부, 지상철의 외면 등 다양한 곳에 할 수 있는데 넓은 면적을 활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광고와는 달리 트릭아트 등의 시선을 끄는 장치를 사용하여 광고인지 모르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 지하철역에도 우리 병원 광고가 있다. 재학생인 나는 관심이 있어서 광고를 자세히 보았는데 가독성이 좋지 않으며, 전문적인 용어들이 가득해서 이게 과연 광고 효과가 있을까 하고 지나쳤던 기억이 난다. 따라서 우리

병원의 장점만을 나열한 기존의 광고에서 나아가 광고를 보는 사람들을 고려한 재미있는 지하철 광고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발표를 들으며 내가 생각해 보았던 홍보 방식과 비슷했던 아이디어로는 현재 우리 병원 내에 있는 마음약방과 콜라보하여 시내에 우리 병원 마음약방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들의 병든 마음 상태를 치유해줄 수 있어 환자의 needs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입소문 마케팅의 효과도 있을 것이며 대놓고 하는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도 덜할 것이다. 특히 요즘 SNS를 즐겨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갬성(?) 인증샷과 해시태그로 인한 홍보가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모든 홍보 방식에 발표에서 언급될 황보창호 학생이 직접 제작하고 우리 병원의 비전까지 담은 로고를 박는다면 우리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이미지가 확실히 인식되고 좋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사를 마무리하기 전 책을 하나 추천해보려고 한다. '세스 고딘의 보랏빛 소가 온다.' 라는 책인데, 입소문 마케팅에 대한 책이라고 한다. 우선 책 제목부터 이 조가 추구하고자 하는 홍보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프랑스 여행을 하던 중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소 떼를 보고 매료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십 킬로미터를 지나 똑같이 생긴 소 떼를 계속 보다보니 경이롭게 보이기만 하던 소 떼가 따분해 보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저 소들이 평범한 젓소가 아니라 보랏빛 소였다면 어땠을까 느꼈다고 하며 마케팅에서의 새로운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훈은 간단하다. 따분한 건 항상 실패로 귀결된다. 따분한 건 언제나 가장 위험한 전략이다.'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러나 보랏빛 소도 처음에는 시선을 사로잡겠지만 결국에는 지루해지고 말 것이다. 언제까지나 새로운 것만 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전에 보았던 책 중 인상 깊었던 구절 중 대한민국 광고에는 신제품이 없다며, 학생들에게 생각나는 신제품에 대해 얘기해보라 하니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반면 20년 동안 변함없이 두통, 치통, 생리통이라는 카피를 유지하고 있는 게0린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과 함께 기존의 것을 잘 개발해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눈높이 지팡이 '낭만닥터'

취재 : 채현주 / 담당 교수님 : 오훈규 교수님 / 참여학생 : 김준우, 김지수, 김태균, 이건욱

2018년 5월 21일 3시 30분, 루가관 414호에서 모임을 가진 9조를 방문하였다. 스스로를 '낭만닥터'라고 칭하는 9조의 주제는 눈높이 지팡이라는 강좌로서 우리 병원의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수업이었다.

"홍보란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엔 '신문에 기사 내는 것', '지하철역에 붙어 있는 광고', 'TV에 연예인들이 나오는 CF'를 떠올릴 것이다. 요즘은 '마케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홍보와 마케팅 속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마케팅의 수단이 신문, 인터넷 정도에 불과했다면 요즘은 SNS를 비롯해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이 소개되고 있다. 지금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노출되는 입장이라면 불과 몇 년 후 병원에 들어가고 필드에 나가 개원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소위 말하는 이과생으로 마케팅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우리 병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환자의 입장에서 어떤 마케팅이 효과적이며 나아가야 할 개선점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1학기 동안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나간 9조의 이번 시간은 한 학기동안 병원 홍보에 관련하여 그들이 해왔던 과제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한 학기동안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우리 병원의 홍보 상황이나 개선점을 생각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대구에서 홍보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병원이나 학원을 선정해 그들의 홍보 전략을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그들이 선택한 예시는 '송원학원' 과 'V성형외과' 였다. '송원학원'은 대구 최대 규모의 재수학원으로 실제로 우리 학교에만 송원학원 출신이 수십 명이다. 가장 크다는 이유로 잘되는 것도 있겠지만 송원학원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홍보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은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두 번째로, 동성로에 위치한 'V성형외과' 또한 홍보에 성공한 대표적인 병원이며 필자는 실제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코는 V성형외과라더라."라는 이야기를 들곤 했다.

그렇다면 실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나 대구 시민들은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의문점을 가지게 된 9조는 병원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김태균 학생에 의하면 설문조사를 거부하는 환자들도 계시고 설문조사를 설명하는 과정이 쑥스러워 순탄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호흡기내과, 신경과 류마티스 내과,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등등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5% 정도는 매우 만족, 50% 정도는 만족, 나머지 25%는 그저 그렇다고 답변하셨다.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원들은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SWOT 분석'이란, 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해 Strength(소비자로부터 강점으로 인식되는 것), Weakness(소비자로부터 단점으로 인식되는 것), Opportunity(외부환경에서 유리한 기회요인), Threat(외부환경에서 불리한 위협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을 수립하는 기법이다. 병원의 내적, 외적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어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죽이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것이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해 본 결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가지고 있는 Strength는 대구에서 제일 큰 권역 류마티스센터, 전국적으로 유명한 간이식센터, AAHRPP 인증 등이 있었고 Weakness로는 교통적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 노출성이 떨어진다는 점, 대구 내 타대학병원에 비해 외부인지도 및 대구 내에서의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 의대 입학정원이 매우 적다는 점이 있었다. Opportunity는 류마티스 질환의 증가와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 병원에 새롭게 도입된 다양한 최신장비, 대구 지역의 빠른 고령화로 인한 환자 증가, 대구 지역이 전국에서 암 발생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진률이 최저라는 점 등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Threat은 타 지역에 비해 대구 내에는 대학병원이 많다는 점, 4개의 대학병원 중 가장 후발 주자, 인근에 위치한 동산의료원의 최신 증축, 환자들의 의료분야에 대한 배경지식 확장 및 무분별한 오지식 남용으로 인한 compliance 감소가 있었다.

우리 병원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에 대해 조사해보았다면 각각의 요소들을 결합시킨 SO전략(강점-기회전략), ST전략(강점-위협전략), WO전략(약점-기회전략), WT전략(약점-위협전략)을 세워 마케팅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그 중 SO 전략을 소개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류마티스 질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과 동시에 우리 병원의 우수한 류마티스 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환자를 끌어모은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대구 지역의 전국 최고 수준의 암 발생률에 비해 검진률이 제일 낮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하여 대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병원의 WATSON for oncology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이 SO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서는 홍보의 4가지 중요 원칙인 전문성, 차별성, 친밀함, 인문학적 요소 중 인문학적 요소를 위해 우리 병원의 모토인 스텔라2020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스텔라 즉 별은 반짝반짝 거리고 희망과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각자의 별을 matching시켜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좋은 홍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눈높이 지팡이

(부제 : 의대생들의 광고제작 일기)

취재 : 전해연 / 담당교수님 : 김대동 교수님 / 참여학생 : 양승헌, 이찬희, 정재익, 황성호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 활동에는 '눈높이 지팡이' 라는 주제를 가진 팀들이 있다. 지난번 테마스쿨에는 없었던 주제로, 이 팀들은 우리 병원의 홍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홍보물을 제작해보는 활동을 한다. 처음에 나는 활동 내용을 듣고 너무 어려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홍보는 전문적인 성격이 짙은 분야이고 그러한 것에는 문외한에 가까운 우리들이 할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팀원들이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관찰하다 보니 내가 처음에 가졌던 걱정이 단순히 기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각자의 개성 있는 아이디어와 교수님의 조언이 합쳐져서 상투적이지 않은, 색다른 홍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내가 담당했던 '눈높이 지팡이' 9 조는 3 개의 홍보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 내가 취재하러 간 날이 3 가지 활동에 대한 중간 평가가 있던 날이라서 운이 좋게도 결과물들을 미리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병원에 대한 캐치프레이즈 만들기로, 섬김과 대가를 키워드로 해서 황성호 학생이 담당하고 있었다. 섬김은 손 모양을, 대가는 십자가를 모티브로 하여 그림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신선했다. 두 번째는 양승헌 학생이 담당한 셔틀버스 홍보를 위한 부채 제작으로, 부채에 들어갈 셔틀버스 홍보 포스터를 작업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 중 나이가 많으신 노인 분들의 비율이 높는데 셔틀 버스 이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부채에 셔틀 버스 노선에 대한 정보를 담아 노인 분들께 홍보하려는 계획인 거 같았다. 곧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종이로 된 팸플릿 보다 부채가 훨씬 더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승헌이는 평소에도 문서 디자인에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포스터 작업에 그러한 감각들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 같았다. 세 번째는 우리 병원의 강점을 알리기 위한 카드 뉴스 제작이었는데, 이찬희 학생과 정재익 학생이 함께 담당했다. 셔틀 버스 부채가 노인 분들을 위한 홍보였다면 카드 뉴스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우리 병원을 알리는 홍보물이었다. 홍보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구구절절하게 써도 안되고 너무 간단하게 써도 안된다. 적당한 분량이면서도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임팩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찬희와 재익이가 그러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제작한 것 같았다. 간결한 문장 속에 우리 병원의 강점들을 잘 녹여낸 카드 뉴스였다.

일정 상 취재를 한 번 밖에 가지 못했지만 중간 결과물들을 모두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독특한 소재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을 끝내면서 곧 나오게 될 최종 결과물이 더욱 기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성호, 찬희, 재익, 승헌이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실으면서 기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성호와 찬희는 '홍보는 의대생이 무작정 도전하기에는 어려운 분야였던 것 같다'는 소감을, 승헌이는 '이과라서 문과적인 활동들에 취약했는데 의료인문테마스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어쩌면 책상에 앉아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경험을 한 걸지도 모른다.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의료인문테마스쿨이 꼭 이어졌으면 한다'는 소감을, 재익이는 '전혀 몰랐던 홍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카드 뉴스를 만들면서 홍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이 활동을 통해 배운 점들이 나중에 나 자신을 소개,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소감을 남겨주었다.

